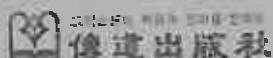


응답받는 기도조건 /

그리스도인의 기독생활

칼 노트 2 세, 윌리암 맥도날드 지음
김 병희 옮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 도 출판사

411-31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전화 : (031) 914-2732, 팩스 : (031)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Ilsan4-dong, Ilsan-gu, Koyang-shi,
Kyunggi-do, 411-314, KOREA

Does It Pay To Pray?

by

**Carl T. Knott, Jr.
William MacDonald**

**Everyday Publications Inc.
421 Nugget Avenue, Unit 2
Scarborough, ON, Canada M1S 4L8**



- 기도는 아침의 열쇠이고 밤의 자물쇠입니다.
- 기도없는 하루는 축복없는 하루이며, 기도없는 일
생은 능력없는 일생입니다.
- 하나님과 보낸 한 시간은 인간과 보낸 일생만큼의
가치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 우리가 항상 설교해야 할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것에 관하여
듣기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 성도들이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오랜 시간 동안 기
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은 느린 속도로 머뭇거
리며 늦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 기도는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요새를 지키는 보초와 같습니다.
일을 성취하는 노련한 장인과 같습니다. 영적 상태
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습니다.



- 만일 기도가 그대의 생활에서 죄를 다시리지 않는다면 죄가 기도를 다스릴 것입니다.
-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며 기도가 없는 것은 재앙입니다.
- 우리 모두는 기도할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목전에 우리의 무력함과 다른 사람의 무력함을 펼쳐놓는 것입니다.
-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숨결이요 혈떡임입니다.
-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차 례

1 기도란 무엇입니까?.....	9
2 기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9
3 기도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10
4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11
5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을 지니고 있습니까?.....	14
6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16
7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합당한 순서는 무엇입니까?.....	16
8 공적(公的)인 기도에 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다?.....	17
9 기도시간은 날마다 어느 정도 가져야 합니까?.....	18
10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20
11 믿음과 기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22
12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24
13 기도와 금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6
14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29
15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29

16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까?.....	31
17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을 일을 우리 가 기도함으로써 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34
18 우리는 마태복음 6 : 9~13에 나오는 주기도를 어떻게 사 용해야 할까요?.....	35
19 기도하는 것이 왜 그처럼 어렵게 생각될까요?.....	39
20 기도할 때 생활이 산만해지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 을까요?.....	41
21 기도목록을 어떻게 작성합니까?.....	44
22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기도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49
23 어떤 사항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음 니까?	51
24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바를 미리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합니까?.....	53
25 혼자서 기도를 드릴 때에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합니까? 아 니면 마음 속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56
26 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맘서려집니다.....	57
27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일을 하 시는 것 외에도 다른 일들을 스스로 하십니까?.....	58
28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59
29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더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 까?.....	61

30 어떻게 하면 기도집회를 더욱 흥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62
31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7
32 기도와 행동은 상호 배타적일니까?	68
33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엡 6:18, 유 20)은 무슨 뜻 입니까?	70
34 기도는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71
35 기도는 정말 그 댓가를 지불합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들은 천사들이었을까요?• 던컨(Dunkirk)의 기적• 저자를 만남• 나비 덕택에 찾게된 영수증• 과수원을 보호하심• 탕파와 인형• 특별한 사명을 띠고 터어키로 간 사람• 그레이하운드 버스에서의 만남• 열매를 맺은 씨• 인간은 틀렸지만 하나님은 옳았다• 어떤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기	72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의(定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나 우주의 보좌실(寶座室)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자녀가 자기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를 살피는 천사들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 생활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며, 우리는 현재보다 더 자주 기도의 특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첫째로 예배의 기도가 있으며 이것에는 찬양과 흠토와 감사가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신 일에 대해 우리의 감사를 그분에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와 불의와 허물을 인정하고 우리 아버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기도의 다른 형태로는 **도고(禱告)**, **간구**, **소청(訴請)**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정의를 내리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 은혜의 보좌로 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시 명백해지는 한 가지 사실은 기도가 하나의 특권으로서 여러 형태를 띤다는 점입니다. 물론 기도는 경건한 사람들이 잠자기 전에 외우는 기도문에 불과한 것도 아니고 요구 사항을 일방적으로 하늘로 발송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여러 형태의 기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점이며, 이 대화는 필요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갈 4:6). 주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6:9에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

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매주일마다 단어들만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생활을 공부함으로써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를 배우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것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배울 때에 시간을 내어 실제로 그 일을 해보지 않는 한 그 일을 참으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조종사가 되려는 사람은 비행에 관한 교범들을 공부하고, 용어를 배우며, 숙달된 비행사들을 관찰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이 비행기를 자기 손으로 직접 조종해 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내어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읍니다.

응답 받는 기도에 대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일관되고 효율적인 기도 생활을 하려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믿는 자이어야 합니다(요 9:31). 다시 말

해서 기도 응답에 관한 수많은 약속들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들은 예외에 속합니다.

응답 받는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조건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생활 가운데서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갖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시 66 : 18).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동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만일 자기 마음 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그가 만일 하나님이 말씀에 명시해 놓은 사항에 대해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도 없읍니다(요 15 : 10). (왜냐하면 거하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죄들 중에서 몇 가지를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지 않는 것(마 5 : 23 ~24, 6 : 15, 막 11 : 25)
-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약 4 : 3)
-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간의 불화(벧전 3 : 6~7)
- 여하한 불순종(요일 3 : 22)

-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잠 21:13)
- 우상 숭배(겔 14:3)
- 탐욕
-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마구 퍼지는 죄
- 이 밖에도 많은 사형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이 주는 직접적인 유익들 중의 하나는 효과적인 기도생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마 9:28, 21:22, 약 1:6).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과 또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며, 그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특별한 기도들에 관계된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꼭 이행하시리라는 것과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히 11:6).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히 10:22). 예를 들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진실치 못합니다. 또 청중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진실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논쟁을 가라앉히기 위해, 여론을 자극하기 위해, 또는 하고 싶은 말을 자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천장보다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진실치 못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기도를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쓸 데 없이 그저 길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열납되지 못합니다.”(사우드 박사).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요 14 : 13~14, 16 : 23).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을 지니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기도 끝에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 일치된 사항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의 권위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요일 5 : 14).

A. W. 핑크(Pink)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님께 진실로 간구 할 때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 자신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 리도우트(Samuel Ridout)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분에게 손을 붙잡힌 채 기도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 분이 우리 곁에 무릎을 끊는 것이며, 그분의 소원이 우리 마음을 통해 훌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돌프 사퍼르(Adolph Saphir)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에 있어서 한 가지 필수적인 조건은 우리
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소원을 따라, 아버님의 뜻
을 따라,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
로 그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자
기 부인이 없이는 간단히 말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주님의 이름은 곧, 그분 자신, 그분
의 본질과 같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복되신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내용은 필히 그분의 본질과 일치하는 것
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 속에 주
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소원을 표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더욱 많이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끝내면서 우리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꼭 덧
붙이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간구한 내용
전체가 예수님이 복되신 이름으로, 곧 모든 것이 그 이름
대로 침투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주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어서 주 예수님의 여러분
의 기도에 자기 이름을 기꺼이 서명하고 “아멘” 하심으로
써 그것을 자신의 기도로 만드실 수 있을 정도로 합당하

게 드려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모양의 기도 자세가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과 한나는 서서 기도했으며(창 18:22, 삼상 1:26), 솔로몬과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며, 모세와 아론은 주 예수님처럼 엎드린 채 기도했습니다(왕상 8:54, 단 6:10, 민 16:22, 마 26:39). 솔로몬 왕과 사도 바울은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이것은 간구의 태도이자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가장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회중(會衆) 가운데서 기도할 때는 일어서서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13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는 회개와 참회를 보여주는 합당한 자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합당한 순서는 무엇입니까?

예베소서 2:18에 따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기도 가운데서 주 예수님이 직접 언급된 때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눅 24:51~52, 행 1:24, 7:59, 9:5~6, 10:14, 계 22:20). 오늘날에도 우리는 초기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적(公的)인 기도에 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침니까?

이 주제에 관계되는 주요 말씀은 디모데전서 2:1~8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과 통치자들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기도하는 책임은 여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전 14:34) 남자들에게 있으며(고전 14:8) 이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의 문제이며,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화적인 렌즈들”(cultural lenses)을 통해 그와 같은 말씀들을 봄으로써 그 중요성을 삭제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공적인 기도에서는 한 남자가(큰 소리로) 기도를 인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의 기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조용히 그의 기도를 함께 따라갑니다. 그의 기도가 끝나면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의 기도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현합니다(고전 14:16).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끌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우리는 이 말씀을 공적인 기도를 금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 예수님은 자신의 규칙을 스스로 파괴하신 셈이 되었을 것입니다(요 11:41~42)! 그분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공적으로 기도하는 위선적인 습관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또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듣기좋게 적당히 매만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피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은 날마다 어느 정도 가져야 합니까?

이것에는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인내의 시험장이나 마라톤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기도는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은 여러가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필요나 긴박감을 느낄 때, 우리가 하루 종에 하는 여러가지 일들 중에서 기도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심의 폭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기도에 투자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셔서 더 긴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때에는 마음의 짐이 그리 무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님께서 온 밤을 기도로 보내신 것은 자기 주위에 산재해 있는 엄청난 영적 싸움과 그 모든 필요를 의식하셨기 때문일 것

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싸움과 필요를 크게 자각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시 55 : 17, 단 6 : 10).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전형적인 예인데 그는 왕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습니다(느 2 : 4). 바울은 우리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으며 (살전 5 : 17, 앱 6 : 18), 성경은 그가 자신의 가르침을 자기가 먼저 실천했음을 증거합니다(롬 1 : 9, 앱 1 : 16, 골 1 : 3, 4, 9, 살전 1 : 2~3, 딤후 1 : 3).

만일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기도함으로써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시 63 : 6).

나는 훌연히 잠이 깐다!
시계는 2점을 친다.
집안은 쥐죽은 듯이 고요하다.
내 생각은 정처없이 방황한다.
나는 조용하면서도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이다.

— 토비아스 —

스토운월 잭슨 장군(General Stonewall Jackson)이 벼지니

아 군사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 습관을 철저하게 들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물 한 잔도 제 입으로 가져가지 않으며, 기도를 봄투에 붙이지 않고서는 편지를 봉하지 않으며, 제 생각을 하늘로 향해 들어올리지 않고서는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지 않으며, 강의실로 들어오고 나가는 생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서는 강의실을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때보다 바쁜 날을 맞이할 때에, 그리고 몹시 분망하여서 기도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마르틴 루터의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세 시간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모든 일을 잘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문해 봐야 할 질문은 “내가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입니다. 기도 시간을 더욱 많이 갖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열납될 만한 제사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매일의 일과 중에서 일정한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여 그것을 고수하는 것을 성경은 지지합니다. 시편 55:17에서 우리는 다윗이 기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 이 시간들을 따로 구별해 놓았으며,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본을 따름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건한 사람, 다니엘은 다니엘 6:10에서 볼 수 있는대로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를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 역시 우리에게 유익한 본입니다(단 10:19).

아침 기도 시간은 그 날 하루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 날의 일과를 위해 도움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정오 기도 시간은 ‘원기를 북돋우는 휴식’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 다시 주의를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기도 시간은 그 날 하루의 활동들을 돌아보면서 죄를 자백하고, 새로 발견된 필요를 위해 간구하고, 악경꾼이신 하나님께 수면 시간을 부탁드리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말했습니다(살전 5:17). 이것은 기도하는 마음가짐 또는, 기도하는 심령을 암시하며, 우리는 하루를 보내는 동안 필요를 볼 때마다 이와 같은 심령으로 자주 기도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필요를 볼 때마다 즉시 기도하고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유혹을 거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먼저 좋은 본을 보여 줌으로써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그렇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방법을 첫째로 사용하여 기도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반드시 그(하나님)가 계신 것과 또 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히 11 : 6).

어떤 것을 굳게 믿기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신다면 저는 기도로 그 약속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모든 기도의 목표 일 때,
하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아버님께 드리실 때,
성령님께서 기도를 자극하실 때,
믿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그 때 우리는 구하는 사람들의 모든 간구가
응답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주요한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 중 첫째가 성경인데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그분의 일반적인 뜻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경 중심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옥 많은 응답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나 약속을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계시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성령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든지, 또는 자금이 제 때에 마련될 것이라든지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과 더불어 우리는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록된 말씀과 모순되는, 사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결코 주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나 직관, 또는 예감 같은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이 주관적인 것들은 성경의 지지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관적인 계시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셨다고 종종 말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을 요약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또는 개인적인 말이나 권면(이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합당해야 합니다.)에 의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뜻을 모르는 경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모르는 경우에는 그분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롬 8:26, 27, 34).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는 요구하는 내용에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모를 때가 많이 있으며 이런 때에는 우리의 요구를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6:39).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 하기를 바람이라”(고전 16:7).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어늘”(약 4:15).

존 맥네일(John Macneil)은 『성령 충만한 생활』 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다면 그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믿음으로 ‘요구하는’ 것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그

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자기 소유로 주신바 된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또 받을 수 있읍니다. 따라서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할 필요가 없읍니다. “만일”이라고 말할 필요가 어디 있읍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자기 뜻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읍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읍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그에게 주시지 않았읍니까? 그렇다면 그가 “만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주님을 조롱할 필요가 있겠읍니까?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지 아니한 어떤 것, 그분이 뜻이라고 계시하시지 않은 사항에 관련된 어떤 것을 원한다면, 이 경우에 그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분명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행위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기도 가운데서 ‘그저 구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우기거나,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굳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

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고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금식은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에서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식사를 한 후에 기도를 하면 우리는 흔히 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음식 생각을 하지 않는한, 더 잘 집중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진지하게 만듭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면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진정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금식과 기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음의 성경 말씀들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 9 : 18~20, 삼 20 : 24~28, 삼상 7 : 5~9, 스 9 : 3~6, 10 : 6, 느 1 : 4, 9 : 1~3, 시 35 : 13, 롬 1 : 13~14, 론 3 : 7~10.

첫 번째 의미의 금식, 곧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외에도 결혼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절제하는 것, 역시 기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 : 5~6에서는 금식이 기도와 연관되어 언급되어 있습니다(우리 말 성경에는 고전 7 : 5~6에 금식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 않으나 흄정역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음—역자 주). 그렇게 하는 목적은 마음이 나누임이 없이 기도에만 전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절제를 너무 지나치게

함으로써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オス왈드 샌더스는 『효과적인 기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약성경을 살펴보면 금식은 언제나 임의대로 행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금식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특별한 시험을 만날 때나(마 4:2),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동행을 갈망할 때(고전 7:5),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복음 전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행 13:1~3), 교회의 발전에 특별한 진통이 있을 때(행 14:21~23), 어떤 다루기 힘든 상황이 금식 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도가 없을 때(마 17:21, 우리 말 성경에는 마 17:21의 본문이 나와 있지 않으나 각 주에는 나와 있음—역자 주) 금식에 의지했느니다.”

금식은 흔히, 금식하는 사람과 주님과의 사적인 문제라는 것을 저는 필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은밀하게 해야지, 자신의 신령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금식을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마 6:16~18).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씀들에 나와 있는 대로 금식 기도가 단체적을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대하 20:3, 느 9:1, 애 4:16, 행 13:2.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원칙을 소홀히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공적인 기도를 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금식도 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을 맞되
무릎을 꿇어 그에게 기도하여라
마음을 들어 그 계신 곳을 향하여
그의 사랑을 받고자 그리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오늘의 양식을 받아라
그대의 생각이 거룩해지며
근심된 일도 달게 되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온종일 지나면
그대의 하는 일에 무엇이든지
그대가 가정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는 항상 그대 곁에 계시리라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야기 하여라
그대의 영이 하늘을 날으리라
내려주신 모든 선한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미를 드려라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을 마치되
그대의 죄를 그에게 고백하여라
주님의 속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의 의를 변호하여라

하나님과 더불어 잠자리에 누어라
하나님은 잠을 주시는 이시로다
그대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대를 지키시리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의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천국에 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로 천국을 채우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전도지를 건네줄지 모르고, 그들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떤 친구나 이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인자(因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23은 우리의 보살핌과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변화시키시지 않고자 하는 사항들이 종종 있다고 계시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신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읍니다(그것은 그의 육신의 질병이었음이 분명 합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시는 대신, 바울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했습니다(고후 12:7~9). 기도로 병을 고쳐주시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로 품임없이 졸라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자기 집에 밤늦은 시간에, 예기치 않게 찾아온 손님을 맞은 어떤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충분한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친구 집으로 가서 문을 계속 두드렸고, 결국 그는 안으로 들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받았습니다(눅 11:5~8).

또 한 가지의 비유는 재판관한테로 가서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애원하는 어떤 파부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재판관이 그녀의 수치를 모르는 끈질김 때문에 결국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답니다(눅 18:1~8).

이 두 비유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며, 구하고 또 계속 구하며, 찾고 또 계속 찾으며, 두드리고 또 계속 두드려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는 마치 어떤 소년이 초인 종을 눌러놓고는 문이 채 열리기도 전에 달아나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과 다릅니다(고후 12:8). 하나는 의심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필요를 깊이 느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그래서 그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쉬지 않는 기도는 같은 사항을 수 백번씩이라도 반복하여 말할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혔된 중언부언을 경고하신 우리의 선생님께서는 효과있는 끈기를 분부하셨읍니다”(A. 맥라тен).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읍니다.

- ① 주님께서 이미 안된다는 응답을 하셨을 때입니다(신 3:26, 고후 12:9).
- ②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었을 때입니다.
- ③ 성령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하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제가 응

답하는 것과 꼭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엡 3:20). 하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녀는 하얀 가루를 보고 그것이 설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독약을 거절하고 그 대신 진짜 설탕을 줍니다. 이 때 부모는 자녀가 요구한 것을 진짜로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응답됩니다”(Choice Gleanings).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오냐, 그러마”라고 대답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안돼”라고 대답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영적인 성장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을 기다리라고 가르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구하는,
바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믿음은 종종 더 깊은 안식을
배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 나타내 보이시는 그분의
침묵을 의뢰할 줄 알아야 할 때
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별들은 소멸되고, 산들은 견뎌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시며, 그분의 약속은
구하는 자들에게 확실합니다.

— 작자 미상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실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기만 하면,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만 하면 응답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때로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여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너무나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와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불신의 죄를
제 마음에서 깨끗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

고 풍성하게 응답되었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땅에 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아쉬워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을 일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4:2에 나오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라는 말씀으로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16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전자의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탓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자가 시사하는 바는 의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행하지 않으셨을 일을 우리의 기도 때문에 행하십니다.

웨슬레의 형제들 중 한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는 그 꿈 속에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천국 창고를 둘러보게 되었는데, 그 창고의 복도 마다 상자가 천장 높이까지 가득히 쌓여 있었읍니다. 그는 창고를 둘러본 후에 천사에게 물었읍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상자들이며, 왜 여기에 쌓여 있지 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만 했더라면 그 응답으로 받았을 것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성취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하여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한 번도 주장해 보지 않았던,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강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연약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수 천, 아니 수 백만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몇 가지의 일 밖에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대륙들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몇 에이커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는 영적인 재벌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극빈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주를 위한 우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개인의 기도의 삶을 변화시켜야겠다고 굳게 다짐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9~13에 나오는 주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그것이 전통에 의해 붙여진 명칭처럼 “주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기도이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와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주기도는 사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드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pray in this manner, 우리

말 성경에는 “이렇게”로 나와 있음 — 역자 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마음의 깊은 열망을 참으로 표현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의도하신 바는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맹목적으로 되풀이하기 보다는 그것을 우리 의 기도의 한 본으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과 더불어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요구사항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급거히 나아가지 말고 잠시 멈추어서 그분에게 예배(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보고 감사와 찬송과 송축을 가지고 그 분에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4절).

둘째로, 우리는 그분의 관심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이다.”

이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마 6 : 33).

그 이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계된 사항들을 간구하라고 권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의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백과 용서가 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자기가 지은 죄와 빚을 자백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부모로서의 용서를 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유혹에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보호 권능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을 진전하게 잘 표현하고 있음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예배(경배)와 찬양으로 돌아가 기도를 끝맺어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신약성경 사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끝맺는 합당한 방법 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를 우리 자신의 기도에 대한 본으로 사용하되 그것을 우리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도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 6:7).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지, 기도를 그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는 종종 기도를 그저 입으로만 말한다.
하지만 나는 정말 기도하는가?
그리고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소원은
정말 일치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저 입술로만 기도를 드리느니
차라리 돌로 만든 우상에게
무릎을 끊고 경배를 드리는 게 낫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마음에도 없는 말은 듣지 않으시며,
진실치 못한 입술의 기도는
경청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주님, 제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소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제가 말하는 것을 마음으로는 느끼지 않으면서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 말게 하소서.

— J. 베튼 2세 —

기도하는 것이 왜 그처럼 어렵게 생각될까요?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며, 영적으로(신령으로) 되는 것은 결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팔이 칼을 휘두르다가 지쳤다는 기록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영적인 것인가면 영적인 것일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쉽게 짐짓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서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환자들을 하루 종일 방문할 수는 있지만 골방에 들어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기도로 온 밤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은 전도하면서 온 밤을 어떤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것 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중보기도를 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작자 미상).

기도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진지한 노력과 더불어 애쓰는 것이요, 끈질기게 써름하는 것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바운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진지한 주의력을 요하고 시간이라는 경비를 요구하며,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은 그것을 좋

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갯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 26:41).
제으름은 종종 우리의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사단이 우리의 길에 방해물을 놓으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보나(Andrew Bonar)는 기도를 시작할 때에 맹렬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참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단은 기도처럼 무서워하는 것이 없읍니다. 사단은 지성소의 문 앞에 광명의 천사로 서 있읍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를 땀데로 돌립니다”(사무엘 차드윅, Samuel Chadwick).

그리고 기도집회 전에 우리가 피곤해지거나 두통에 걸리거나 다른 비슷한 방해물을 만나는 일이 종종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기도집회에 불참하는 것을 위해 정당한 구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육체적인 문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기도집회에 참석하면 큰 축복을 경험하고 완전히 원기를 회복한 채 돌아오게 됩니다. 사단은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두려워 떠는 것이 여전히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주의를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생각이 산만해지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생각이 산만해지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범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들 중의 하나입니다. 야생마와 같은 마음은 울타리나 다른 장애물로 방해를 받음이 없이 숲과 들판을 마음대로 뛰어다니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미있는 기도생활을 하려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길들이고 마음 속에 울타리를 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정신 집중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말씀은 주의를 산만케 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적인(때로는 영웅적인) 행동을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물이 우리의 마음 속으로 가장 잘 들어오는 경로는 “눈”이라는 문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는 눈을 감는 것이 유익합니다. 만일 기도할 때에 눈을 떠야 하는 경우엔 우리의 눈이 기도 제목들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텔레비전, 잡지, 투명한 창문 등등 시각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산만케 하는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소리도 역시 우리의 주의를 산만케 합니다. 이 소리는 “귀”라는 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방해는 조용한 장소를 찾음으로써 피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종종 깃세마네로 가심으로

써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요 18:2). 우리에게 있어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스테레오, 전화, 어린이들의 유희, 사람들의 대화, 심지어는 애완동물이나 기계에서 오는 소음조차 주의를 산만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이와 같은 것들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냄새도 역시 우리의 주의를 산만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냄새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손쉽게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음식 냄새입니다. 이것은 특히 주의 집중을 증진시키기 위해 금식을 하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맛있는 냄새가 코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흘뜨리지 않는 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수처럼) 기분 좋은 냄새나 (음식 찌꺼기처럼) 기분 나쁜 냄새도 우리의 주의를 산만케 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으라”는 말씀은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점유되어 있을 때에는 주의는 분산되기 마련입니다. 아침 일찍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 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느라 주의가 분산되기 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 가지고 생각을 방해하는 사항들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마음에서 물아내고 기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정리해 둔 기도노트를 사용함으로써 잡다한 생각들을 밀어 붙이고 당면한 문제들에 우리

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피곤도 우리의 주의를 산만케 하는 요소입니다. 기도하려고 일찍 일어났으나 졸립 때문에 방해를 받는 사람은 몇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中最한 가지는 잠자리에 일찍 들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기 전에 서늘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원한 음료수나 따끈한 음료수가 정신을 차리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졸음을 죽는 간단한 해결책은 일어서서, 또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하루를 시작할 때 뿐만 아니라 하루가 끝나고 피로를 느낄 때에도 역시 유용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날의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된 마음의 연상 작용에 기인합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의 기도 시간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갖는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잠자고, 기도하고 잠자고… 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은 기도와 잠을 아주 깊게 연관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며, 그런지 얼마 안되어 우리가 어떤 날 저녁에 피곤을 조금 느낄 때 기도를 시작하려 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잠이 올 차례지.”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오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은 기도하면서 잠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떤 젊은이가 사랑하는 자기 애인과 대화를 나누려고 그녀를 부른 후에 그녀가 “○○ 씨”라고 말하자마자 잠 속으로 빠져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의미있는 대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자녀들에게도 기도와 잠이 무관하다는 것을 신중히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은 크고 명백하게 들립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눅 22:46).

기도를 위해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유익합니다(단 6:10). 시간과 장소를 바꾸는 것은 종종 우리의 주의를 산만케 합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여 합당한 시간에 일을 시작하도록 도와줍니다.

금식이 주의 집중을 도와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언급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또 한 가지 사항은 기도 목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 목록은 어떻게 작성합니까?

먼저 날장을 마음대로 끼웠다뺐다 할 수 있는 공책(우리는 이것을 흔히 “바인더 노트”라고 부름 — 역자 주)을 장만한 다음, 첫 페이지의 제목을 **찬양**이라고 붙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 찬양받으실 만한 주님의 속성들과 행하신 일들을 적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찾아 두었다가 목록에 더하십시오.

두 번째 페이지는 자백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것을 적어 놓으십시오. 특히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죄들을 적어 보십시오.

세 번째 페이지는 자기를 위한 간구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열망, 매일의 문제들, 그리고 현재의 필요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공책의 한 장은 일반적인 중보기도 용으로 할애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들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읍니다. 교회, 가난한 사람들, 재난이나 고통,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 환자들, 복음을 위하여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 위정자들과 모든 권세들, 군인들, 지역교회의 장로들, 여러분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 등등.

물론 또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친척들과 친구들의 목록을 기록할 수 있는 페이지를 원할 것입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 반대쪽에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날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곧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했거나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한 페이지도 있어야할 것입니다.(사실,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국이나 고국의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교제를 나누다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파송된 사람들과 우리가 만난 주님의 종들을 위해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요청하는 편지나 사적인 편지, 선교잡지 등을 통해 그들의 문제들과 필요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제목은 감사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영적·육체적 축복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감사를 드리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감에 따라 기도목록도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책이나 잡지를 읽으며,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짐을 지워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즉시 기록해 두지 않는다 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망각할 것입니다. 기도목록은 마음의 방황을 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전망증을 도와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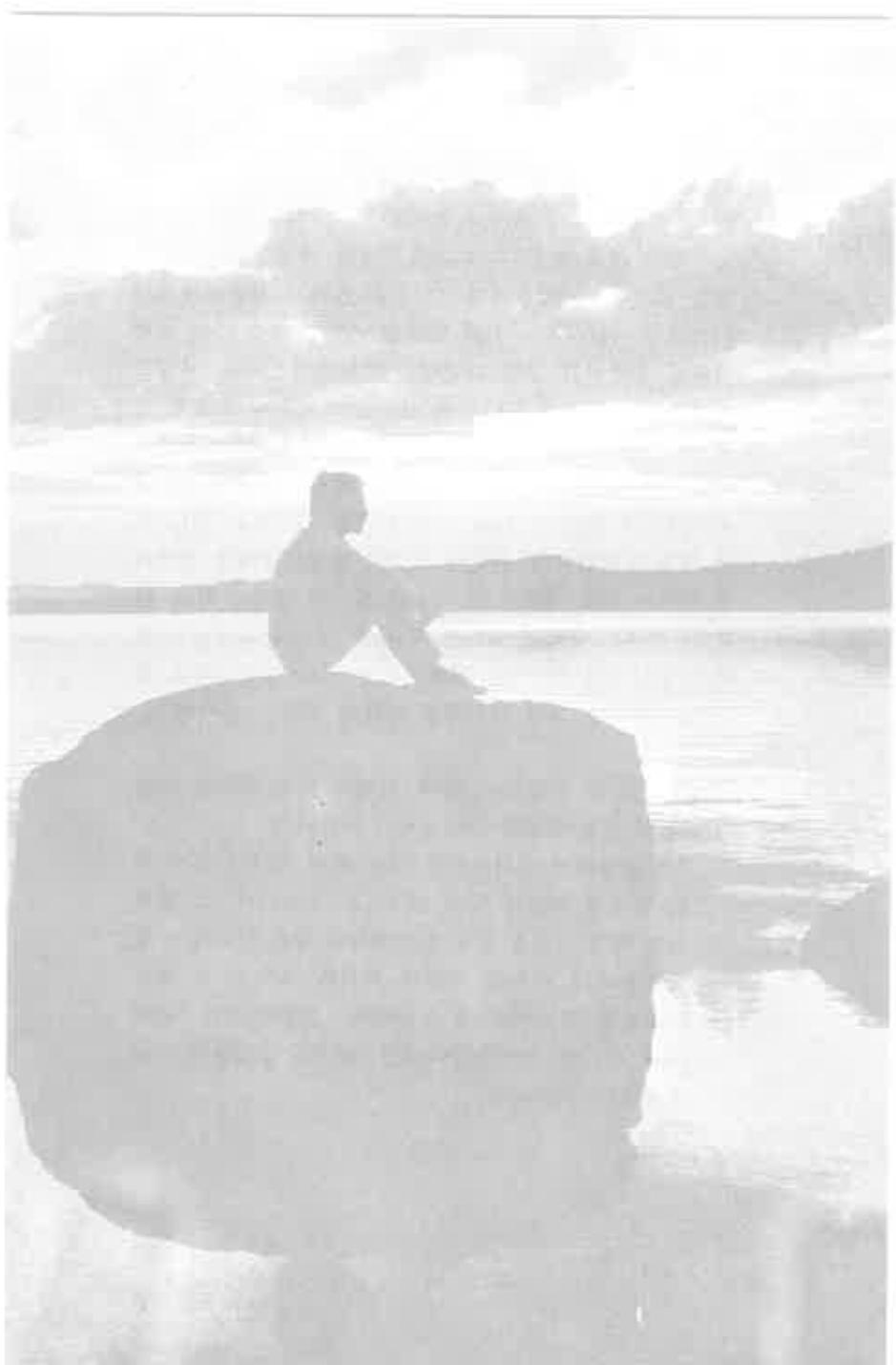
기도 일기를 작성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격려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방황을 방지해 주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일을 증진시켜 줍니다.

사무엘상 7:12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

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한 후 그것을 “에벤 에셀”이라 부르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에 대해 기적적으로 응답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나를 기억하고 격려를 받곤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계표(地界標)를 세워 두는 게 좋으며, 기도 응답 일기를 작성하는 것은 그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간단한 요령을 말씀드린다면 공책의 한 쪽에는 기도 제목과 그 기도를 시작한 날짜를 적고, 다른 한 쪽에는 응답된 날짜를 적을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저 일기처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기도 일기를 작성하는 것에 관해서 어떤 경건한 사람의 다음과 같은 간증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제 일생에서 후회스러운 것들 중의 하나는 제가 기도 일기를 작성해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적어도 그 세부 사항들을 잊어버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그때 일기를 적어놓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고 후회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기도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를 기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끈덕지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눅 11:8, 우리말 성경에는 “강청함으로”로 나와 있음 — 역자 주). 이 “끈덕지게”(강청함으로)라는 단어에 관하여 알란 존슨(Alan Johnson)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를 주의깊게 공부해 보면 그것은 “끈질김”(persistence)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담무쌍”(audacity), 혹은 “부끄러움을 모름”(shamelessness)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비유가 가르치는 바는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 담대한, 대담무쌍한 기도입니다…』

노만 그리브(Norman Grubb)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아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이를 악물고, 당연한 폐를 끼칠 각오를 하고, 어린이들이 잠을 깨리라는 것도 무시한 채 한밤중에 자기 이웃을 깨우되 문 두드리는 소리를 안에서 들었다고 생각이 되면 더 큰 소리로 두드려서 싫어하는 자기 이웃이 그 소란을 진정시키려고 급히 아랫층으로 내려오게 하여, 매우 성이 난 이웃으로부터 마침내 세 덩이의 떡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는 사람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친구였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뻔뻔스러움” 때문에 주었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싫어하는 친구조차 어쩔 수 없이 관대하게 될 수밖에 없을 진대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조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대담하게 기도를 하되 매우 겸손한 태도로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십니다(히 6:15 참조)."

아브라함은 소돔에 있는 의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릴 때에 담대했습니다(창 18:23~32).

야곱도 브니엘에서 여호와와 싸움을 할 때에 담대했습니다(창 32:24~29).

모세도 금송아지의 사건이 있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드릴 때에 담대했습니다(출 32:32).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할 때에도 담대했으며(출 33:12~18), 백성들이 양식에 대해 불평할 때에도 담대했습니다(민 11:10~15).

시편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강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멀치고 깨셔서...”(시 35:23).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시 44:23),

“주여 일어나사...”(시 94:2).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 여호와께 항의했으며(합 1:1~4), 그 다음에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는 것에 대해 항의했읍니다(합 1:12~17).

물론 기도시에 우리의 담대함은 경외심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광대하심과 위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존경심이 없는 말이나 합당치 않는 친숙의 말을 그분에게 결코 해서는 안됩니다. 전도서 5:2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경솔히 입을 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시편 111:9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며, 지존(至尊)하시다고 나와 있습니다(신 28:58 참조).

어떤 사항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마도 아침식사로 어떤 것을 먹여야 할지, 또는 무슨 옷을 입고 일하러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들로 주님을 귀찮게 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식은 우리의 해야 할 바를 알려주며, 비성서적인 원칙이 관계되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량대로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다음의 원칙들을 펼쳐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 중 지극히 사소한 사항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만일 우리가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서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어떤 것은 사소한 문제라고 누가 감히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도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결정이라도 그것이 수반할 문제들과 오랫동안 남을 영향들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께는 사실, 사소한 문제가 없습니다.
찰즈 스필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다른 경건한 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모 씨는 참 점잖은 사람인 하지만 참 이상한 데가 있더군요. 그 사람은 며칠 전에 잊어버린 열쇠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대요. 글쎄!’ 이 말을 저에게 해준 그 사람은 소위 그처럼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에 대하여 깜짝 놀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말하니까 그 사람은 또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겨우 잊어버린 열쇠 때문에 주님을 귀찮게 해드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 그것이 시시하게 생각되신다면 얼마만큼 큰 문제가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일정한 크기 이상의 것만을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

도에 관한 수학(數學)도 배우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사소한 문제들이 종종 우리에게 큰 걱정을 야기시키며, 중요한 문제를 다를 때보다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소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 큰 손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7은, 중요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상식만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식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며, 또 상식은 믿음 생활에 상반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떤 친구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상식은 때때로 쥐약과 매한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미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 및 행동의 자유도 주셨다는 사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요구를 듣고 조건이 맞으면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4:2은 우리의

결핍이 기도의 결핍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 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의뢰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며,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보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기도에 관계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1의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이란 표현은 우리의 의무를 나타냅니다. 테살로니가전서 5:17의 “쉬지 말고 기도 하라”는 말씀도 역시 명령입니다. 그것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면 어떤 일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요 16:24).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 정도(분량)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

항들의 숫자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숫자에 의해 우리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 없이도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님의 유력한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한 그분의 전능 하심에 더욱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전능해질 수 없으며, 심지어 하늘에서조차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다른 방법보다 기도로써 우리는 더 큰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말처럼 “우리는 금식과 기도라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로써 세상의 사건들과 역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일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세상에서 힘의 결정권을 쥐게 됩니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J. H. 조우 웨(Jowett)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불가사의한 기도의 세계에서 기적을 일으키도록 우리의 손에 어여한 사역들이 맡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차갑고 침울한 곳으로 헛빛을 가져갈 수 있으며, 낙담의 감옥 속에 등을 밟힐 수 있으며, 수감자들의 손발에서 쇠사슬을 풀어낼 수 있으며, 고국에 관한 미광(微光)들과 생각들을 먼 타국

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바다 너머에서 수고하다 영적으로 기운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도 하늘의 강심제(強心劑)들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큰 기적들이 지체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릎을 끊고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부여받은 우리의 의지가 그분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빈약한 우리의 기도를 자백하고 회개한 후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혼자서 기도를 드릴 때에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마음 속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기 때문에 방법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를 의식하기도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하면 이것은 쉽게 고쳐집니다. 주 예수님의 기도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큰 소리로 드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집중력과 실제감을 더한다고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 중의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기도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기술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망서려집니다.

기도할 때에 미사여구를 사용치 못하는 것이 이익은 될 수 있을지언정 손해는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순한 말을 사용해야지 진부한 표현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문구나 긴 문장, 다음절(多音節)의 단어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목말라 있는 영혼의 호의를 거의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불후의 기도의 문장들은 얼마나 간략합니까! 그 기도에는 긴 단어가 나오지 않으며, 대부분의 단어들이 한 음절짜리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드릴 때에 여러분이 기도를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의 필요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사적(私的)으로는 길게 기도를 드리면서도 대중 앞에서는 짧고도 간절하게 기도드릴 수가 있으며, 그 반대의 현상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지루할 정도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혼자서 기도할 때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기도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꼭 길어야만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 외에도 다른 일들을 스스로 하십니까?

(위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가?”입니다 — 역자 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물론 그렇게 하시지”라고 성급히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대답을 너무 성급히 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가능성성이 있는 일은, 창조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즉,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뜻임 — 역자 주)

저는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을 위해 누가 기도해 주었습니까?”라고 묻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거의 예외없이 그들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 할머니나 이웃, 혹은 친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스펠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는 자비의 선구자입니다. 거룩한 역사책을 꿰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간구 없이는 큰 자비가 이 세상에 베풀어진 예가 드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축복의 서곡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그림자처럼 축복 앞에 앞장섭니다… 만일 우리가 축복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

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오는 자비들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하게 만듭니다.”

해리 레이씨(Harry Lacey)는 『하나님과 열국들(God and the Nations)』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것이 사람에게 오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건 다 해당된다고 여겨집니다. 에스겔 36 : 37에 나오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는 표현은 아마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기다리시는 것도 기뻐하시며, 인간들이 그분을 양보하는 것은 그분의 지존하신 위엄에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약 4 : 2).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마 다음과 같은 예화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백성이면 누구든, 어떠한 시간이라도 접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거지가 대왕에게로 와 염치 좋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로 자기를 위해서는 농장 하나를 달라고 요구했고, 자기 딸을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공부를 시켜 달라고 요구했읍니다. 그런데 알렌 산더는 그의 요구 세 가지를 전부 들어주었으며, 이를 본 조정은 깜짝 놀랐읍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대왕의 신하들이 대왕에게 놀라움을 표시하자 대왕은 이렇게 대답 했읍니다. “아, 나는 말이야. 나에게 와서 고작 금 한 덩어리나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쳐버렸어. 하지만 그 녁살좋은 거지는 큰 걸 구함으로써 나를 왕답게 대우해 줬어”(Ian Macpherson)

E. W. 무어(Moore)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것을 기대합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적은 걸 기대함으로써 그분을 슬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하잘 것 없는 승리나 번약한 업적, 힘없는 열망으로 만족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지 못해 왔읍니다. 우리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삶과 사람들을 떠받치는 능력에 관하여 문의하게 만드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는 말을 들었지만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나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온 땅을 둘러보려면 우리는 산을 올라가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겨우 한 뼘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을 눈에 바르고, 별관들을 바라보면서 가족들과 이웃들, 교회들, 사회들, 나라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겨우 매일의 양식만을 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을 뒤엎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를 시시한 기도생활로부터 구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더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방해받지 않는 기도시간을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짜놓으십시오. 기도를 드려야 할 경우나 이유가 있을 때마다 즉시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예를 들면, 전화로 통화하는 도중에 어떤 문제나 필요를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상대방과 더불어 기도를 드리십시오.(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름과 기도내용이 적힌 기도카드를 성구암송 카드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차를 타고 여행할 때에나 출·퇴근할 때에, 줄에 서 있을 때에,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에 기도를 드림으로써 “기회를 사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오. 매주마다 갖는 교회의 기도집회에는 우선적으로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교회는 일 년중 이러저러한 때에 일일기도집회를 가짐

으로써 더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소규모의 성경공부집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때때로 이런 집회들 중의 하나를 효과적이고도 유익한 기도 집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사슬을 구성하여 운용하는 것도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사슬이란, 전화를 가진 성도들 중에서 기도 팀을 구성하여 그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각 사람에게 나눠준 후, 어떤 성도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으면 기도 사슬의 처음 고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먼저 기도를 한 후 다음 고리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그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 그 사람도 기도를 한 후 다음 사람에게로 넘겨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기도 사슬의 고리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씩은 부탁 받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물론 이 때 모든 성도들은 기도 사슬의 처음 고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기도를 활성화시키는 훌륭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부탁받은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기도 제목만을 간략하게 말하고 쓸데없는 한답을 피하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집회를 더욱 흥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파티를 하면서는 새벽 2~3시까지 시간을 보낼 수는 있어도 기도집회가 5분만 연장되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대단히 슬픈 현상입니다. 하지만

또 많은 기도집회들이 기억해 둘 만한 행사에 불과한 것이 아님도 사실입니다. 열렬한 인도자와 혁신적인 준비가 없이도 흥미있는 기도집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열렬한 인도자와 혁신적인 준비가 없으면 우리는 어정쩡한 중단이나 긴 기도, 지루한 반복, 애매모호한 표현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기도 집회를 갖는 많은 교회들은 사람들보고, 기도집회를 갖는 것이 성서적이기 때문에 기도집회에 나오라고 억지로 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본을 따르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참석하기 싫어하는 기도집회를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기도집회를 활기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인도자입니다. 그는 기도집회 사이사이에 찬양과 기도 응답에 관한 간증, 적절한 성경말씀 등을 끼워넣기도 하고, 의미있는 기도제목들을 마련하여 집회시간에 순서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그는 또 온 회중으로 하여금 얼마 동안 함께 기도하게 하다가 더 적은 그룹으로 나누어 기도를 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적은 그룹으로 나누어 기도하면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있으며, 가정문제들과 개인의 필요들을 더 자유롭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매들만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그룹들은 자매들로 하여금 기도를 더욱 많이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침

목을 지키며 앉아 있게 하는 것은 때때로 기도시에 마음을 더욱 방황하게 만듭니다.

인도자는 또 교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개별적인 접촉과 선교사들의 기도요청 편지, 또는 기독교 잡지 등을 통해서 기도 제목들을 계속 수집해야 합니다. 그는 또 기도집회 시간에 기도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기도요청을 더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갖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집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길게 갖는 것 때문에 기도시간이 심각하게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집회에서는 기도 제목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상황에 관하여 별로 관계없는 사항들까지도 백과사전처럼 너무 자세하게 나누어집니다. 이런 문제는 기도집회를 갖기 전에 미리 기도요청을 받아둠으로써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메모용 카드를 성도들에게 나누어주어 그 위에다 기도 제목들을 간략하게 적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인도자나 혹은 지정된 사람이 그 카드들을 넘겨받으면 그것들을 한 장의 종이 위에 타자를 쳐서 복사한 후 기도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도 제목을 길게 나누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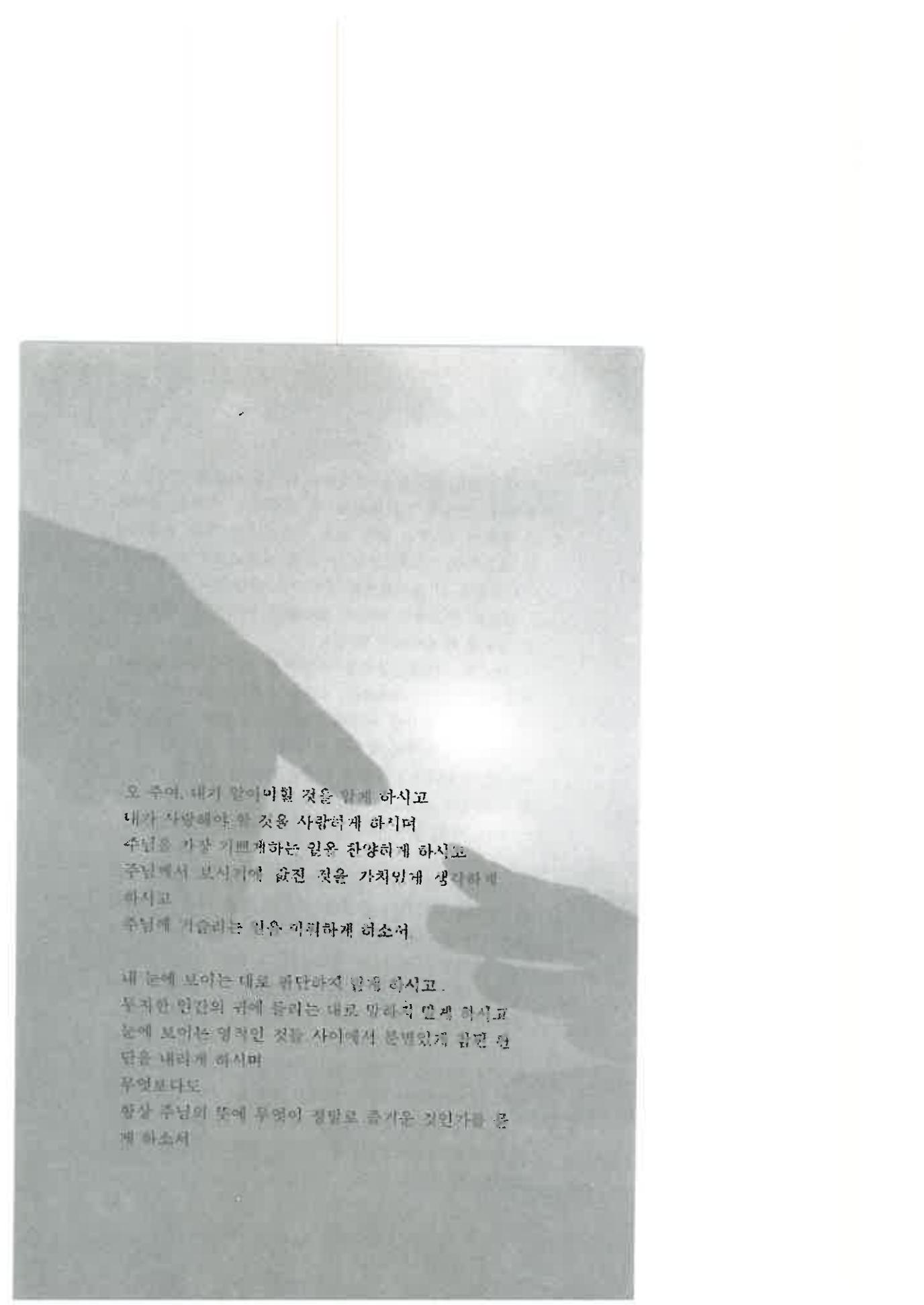
집계된 기도 제목에 인쇄되지 않은 사항들을 기도집회에서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인쇄하여 나눠주는 것의 유익은, 막상 기도집회에

와서야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는 태도를 시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쇄된 기도목록이 각 사람에게 끼치는 유익은 그 목록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사용되면서 더욱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줌으로써 각 사람의 기도생활을 더 효과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단조롭고 긴 기도를 제지시켜야 합니다.

그는 또 기도의 종류를 다양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요청하기도 하고,(이런 때는 악한 행위들을 놓도질게 열거하지 말고 기도집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자백하면 좋습니다.)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또 기도제목이 될 수 있는 매일의 뉴스 — 재난, 비극, 정치 위기, 전쟁 등 —에 민감해야 합니다.

인도자는 성령님에 동조(同調)되어 있어야 하며, 그분의 자극에 민감해야 합니다. 인도자 외의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점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어떤 집회를 인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령님이 그 집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집회 때에 성령님이 전도자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기도집회 때에도 성령님이 인도자를 충만케 하셔서 그를 통해 집회를 인도 하셔야 합니다. 또 인도자는 기도집회 시간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나친 점들을 신속히 통제해야 하며, 기도집회에 불참하려는 사람들이 없도록 더욱 흥미 있고 가치있는 기도집회를 만드는 일에 혁신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 주여, 내기 알이 이 힘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가장 친밀하게 하는 일을 한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을 가치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슴리는 일은 아끼하게 하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바단하게 입을 하시고,
두차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게 믿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을 사이에서 분별 있게 감별 한
단을 내리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항상 주님의 뜻에 무엇이 정말로 즐기운 것인가를 은
제 하소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앞에서 몇 가지 열거했었습니다. 이 각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그 것은 곧 방해물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백하지 않은 죄는 응답의 통로를 막습니다(사 59 : 1~2). 또 용서하지 않는 심령이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것,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불화, 불순종,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동정심의 결여, 우상 숭배, 진실치 못한 것 등등도 역시 응답을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은 때때로 귀신의 훼방 때문에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 10 : 12~13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사(페르샤) 왕국의 군주에 의해 21일 동안 지체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또 하나의 방해물은 “의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 1 : 6, 7, 롬 4 : 20 참조).

이것은 “마음의 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입니다”(A. T. Robertson). 다음 구절인 야고보서 1 : 8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정(定)함이 없는(불안정한) 상태에 관하여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과 정함이

없는 것은 동행합니다. 기도하는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혼들리는 것은 불신의 한 형태입니다.

기도와 행동은 상호 배타적입니까?

개인적으로건, 교회적으로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딪치는 이 난처한 문제에 대한 대답은, “글쎄요… 우리는 그 것에 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든지 혹은 “우리는 육(肉)의 힘으로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저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습니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도는 언제 드려야 좋으며, 행동으로는 언제 옮겨야 좋은지를 분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다 병행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다.”입니다.(다시 말해서, 어떤 때는 오로지 기도만 해야 하고, 또 어떤 때는 행동으로만 옮겨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도와 행동을 둘 다 해야 한다는 뜻임 — 역자 주).

행동이 없는 기도는 진실치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행동은 주제넘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사역에는 능력과 유익이 없읍니다”(A. P. Gibbs).

바울은 자기가 섬기던 사람들과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읍니다. 하지만 그는 또 그들을 방문하고, 가르치며, 권고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읍니다. 예수님이서는 자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읍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 활동적이고 실제

적인 방법으로 날마다 그들에게 자기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다윗도 전쟁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군대를 조직하여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젊어진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또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함으로써 “자기 밭을 기도 위에 두어야” 합니다(즉, 기도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의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임 — 역자 주). 우리는 자신의 삶과 교회의 삶에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잠 28:13), 처음 행위를 가짐으로써(계 2:5)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연단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주권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곧,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리스도의 종과 대사로서의 인간적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합하듯 실제로 부딪치지도 않고 그것을 기도로 대신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선한 것이지만 이것이 순종의 대용물로만 사용된다면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위선이요, 비열한 바리새주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위한 시간이나 집회를 갖는 만큼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이나 집회를 가져야 합니다. 아니,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이나 집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통적인 모든 기도집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표현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너는

오늘 가서 일하라. 일꾼들이 나의 포도원으로 보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다음과 같이 응답하는 표현이 그 뒤를 따릅니다.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주님의 이름이 사방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그러나 만일 이 기도에 부응하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기도집회는 차라리 갖지 않는 게 좋았을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기도도 죽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엡 6:18, 유 20)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는 지배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지워 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in the Spirit) 기도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근심시키는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더불어(with the Spirit, 우리말 성경에는 “영으로” 나와 있음 — 역자 주) 기도하는 것과, 이해와 더불어(with the understanding,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으로 나와 있음 — 역자 주) 기도하는 것은 동행합니다(고전 14:15). 성령님의 지배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알아들을 수 없는 말)으로 기도하

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드려지는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나 그 기도를 듣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고린도전서 14 : 16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기도는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기도는 인간이 회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굴복하시는 능력이요,
필적할 만한 것이 없는 특권이요,
전능하신 아버지로 하여금
자기 자녀들의 필요와 염려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힘이든지 아니면 창피스러운 익살극이
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익살극인 경우에는 많이 기도
할지라도 적게 얻지만, 힘일 경우에는 적게 기도할지라도
많이 얻습니다.

기도는 검은 구름을 사라지게 하고,
야곱의 사단다리를 올라가게 하며,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며,
모든 축복을 위로부터 내려오게 하며,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빛나게 합니다.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을 끊을 때
사단은 두려움으로 떨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예 싸움에서 기권하는 것과 일반입니다.

기도는 정말 그 댓가를 지불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겸손한 자녀들의 기도를 경멸합니다. 그들은 육기에 나오는 와침을 반복합니다.

“인간이 전능자에게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는 영광의 왕자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기도는 공의를 땅에서 집행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모든 피조물은 놀랍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린 모든 기도가 그분에게 상기시켜집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5장에 관한 설교에서 이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요한은 어린 양과 네 그룹, 그리고 24 장로의 환상을 보았는데 이 각 장로들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귀한 기도들은 영광의 금대접 속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기도응답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한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었을까요?

기도 응답의 역사(歷史)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중재하신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느 날 한 선교사가 병원에서 쓸 돈을 가지고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도보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질 즈음에도 그들은 아직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 조그만 야산에서 악영을 해야 할 것 같군요.”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산적들이 있는데요? 이 돈은 어떻게 하실려구요?” 중국인 조력자가 물었습니다.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 돈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함께 기도를 드린 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들은 자신의 몸과 하나님의 돈이 모두 안전한 것을 알았습니다.

수 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산적 두목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얼마 전에 이리저러한 도시로 가서 돈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만...”

“당신은 그 때 호위병들과 함께 어느 조그만 야산에서 악영을 했었습니까?”

“우리는 어느 야산에서 악영을 한 적은 있지만 호위병들은 데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호위병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산적 두목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돈을 약탈하려 했지만 27명이나 되는 호위병들 때문에 무서워서 결국 약탈을 못했었소!”

얼마 후에 그 선교사는 영국의 어느 집회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그 선교사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날 밤 기도집회를 가졌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일기장을 들추어보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날 밤 기도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의 숫자는 모두 27명이었어요!”

던커(Dunkirk)의 기적

주님은 옛날, 갈릴리에서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존·헌터(John Hunter)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침울한 시절에 그리스도인이었던 영국 국왕 죄오지 6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루 동안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국군은 던커(Dunkirk)에서 을무에 빠져 있었으며, 바야흐로 히틀러의 군대는 협공작전으로 그들을 막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가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백성들은 왕의 명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 때 저는 던커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날은 일요일이었는데 다음 날부터 며칠 간 영국해협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전혀 일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노젓는 배조차 던크에서 영국의 하얀 절벽들까지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손실도 없이 모든 사람이 피했읍니다. 이것은 던크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자를 만남

기도는 확률의 법칙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사건으로 상황들을 이끌어 갑니다. 다음의 예화는 “지금(Now)”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것입니다.

『작년에 어떤 그리스도인 자매가 런던 공항으로 나가 터미널을 따라 걸어가는 승객들에게 그리스도를 전 했습니다. 그녀는 여승무원에게로 다가가 복음을 전 했으며, 그 여승무원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그 여승무원이 탑승해야 할 비행기가 호출을 받았고, 그녀는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 자매는 가방 속에서 책 한 권을 찾아 그녀에게 전해주며 읽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 책은 프랜시스 쉐이퍼(Francis Schaeffer) 박사가 쓴 것이었습니다. 그 여승무원이 비행기에 오르는 동안 그리스도인 자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저 비행기에 그리스도인을 보내셔서 저 여승무원을 계속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그 여승무원은 그 그리스도인 자매를 다시 만나 그 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

는 비행기에 오른 후 좌석에 앉아 그리스도인 자매가 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승객이 자기에게로 걸어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방금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가씨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애요. 제 이름은 프랜시스 쉐이퍼입니다.”

나비 덕택에 찾게 된 영수증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잃어 버린 후 찾지 못할 때 답답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 내는 자포자기가 되어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헨리 보쉬(Henry Bosch)는 하나님의 나비를 사용하여 잃어버린 영수증을 찾게 해주신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가련한 과부는 많은 액수의 요금 청구서를 받았고 큰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요금을 이미 다 치렀는데도 청구서가 다시 날아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치룬 영수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요금을 다시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으니다. 그녀가 가진 돈은 자기 남편의 장례비로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녀는 영수증을 찾게 해달라고 주님께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금원이 그 과부의 집을 방문하여, 만일 그녀가 며칠 안으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

정에 고소하겠다고 육박질렸습니다. 바로 그 때 나비 한 마리가 열린 창문으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이걸 본 그녀의 어린 아들은 그것을 잡아 학습과제물에 보텔 욕심으로 그것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그것을 잡으려 하자 나비는 소파의 등 위에 내려 앉았다가 그 뒤로 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소년은 그 무거운 가구를 혼자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수금원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가구를 밀어제끼자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집어든 파부의 눈은 기쁨과 흥분으로 동그랗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수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존귀케 하셨던 것입니다.”

과수원을 보호해 주심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꿈조차 꾸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음의 예는 “매일의 양식” (Our Daily Bread)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일본의 어느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천 그루의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가족의 생계는 전적으로 이 과수원의 수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과수원으로 나간 그는 반쯤 자란 과일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상한 별레에게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낙담에 빠졌습니다. 이 별레는 거의 모든 나무에 침범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불러모으고 자기들을

도와 주시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에다 행위를 더하여 새벽부터 저녁까지 벌레들을 제거하려고 열심히 일했읍니다. 하지만 벌레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기만 했읍니다.

그들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갈 것이 곧 분명해졌읍니다. 그 날 밤 그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읍니다. 다음 날 아침 과수원으로 나간 그들은 수 백 마리나 되는 이상한 새들이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읍니다. 이 새들은 과일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이 벌레들을 계속 잡아먹기 시작했읍니다. 3일 후에 그의 가족들이 과수원을 걸어다니며 살펴보았을 때 벌레는 한 마리도 없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사용하여 과수원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탕파와 인형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풍부한 상상력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헨리 보쉬(Henny Bosch)를 통하여 다음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읍니다.

“자이레의 선교사인 헬렌 로우즈비어(Helen Rosev-care) 박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읍니다. 우리 선교지에 있던 한 여인이 조산(早產)을 한 후에 죽었읍니다. 우리는 조산아를 살리기 위해 보육기(인큐베이터)를 즉석에서 만들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

던 단 하나의 탕파(유담뽀, 더운 물을 넣어서 봄을 덥게 하는 쇠나 자기로 만든 그릇)는 수리될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 아침 경건의 시간에 아이들보고 조산아와 이제 고아가 된 어린 언니를 위해 기도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소녀들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탕파 하나를 보내주세요. 내 일이면 너무 늦어서 저 아기는 죽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또 저 아기의 언니가 외롭지 않도록 인형한 개도 보내주세요.”

그날 오후가 되자 큰 소포 꾸러미 하나가 영국에서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끌르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우리 주위에서 진지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옷가지 아래에 탕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때 간절히 기도했던 소녀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꾸러미 속을 더 깊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탕파를 보내셨다면 인형도 보내셨을 껴야. 틀림없이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소녀의 말은 옳았습니다! 아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5개월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던 천부께서는 어떤 숙녀 그룹을 인도하셔서 그 특별한 품목들을 꾸러미 속에 집어넣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띠고 터어키로 간 사람

대학교를 졸업하는 어떤 젊은이가 구원받지 않은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의 짐을 느끼기 시작 했습니다. 그는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졸업한 후 공군장교가 되어 각기 다른 곳으로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자기 친구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지만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친구인 톰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개 월 후에 그는 터이키로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군사기지에 있는 상점의 계산대에서 자기 친구인 톰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점 밖에서 재 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톰의 부대는 수 천 마일이나 떨어진 미국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톰은 특별한 사명을 떠고 터이키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톰의 결혼생활이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과 이로 인해 고독을 느낀 톰이 행복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톰은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보여. 나는 지금 그것을 바라고 있단 말이야.”

이 말은 그리스도인 친구로 하여금 간증과 복음을 나누 게 만들었고, 드디어 톰은 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를 후에 톰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터이키를 떠났습니다. 톰의 특별한 사명은 누가 부여했을까요? 공군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레이하운드 버스에서의 만남

그렉 리빙스턴(Greg Livingston)은 선교지에서 잠시 귀국했을 때 일리노이즈에 사는 저를 방문하여 선교지에서 일어난 한 가지 문제를 저에게 나누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렉 형제님, 형제님이 방문하려는 다음 도시에는 형제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 아시는 장로 형제님이 살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주소를 드릴 테니까 그분에게 말씀드려 보시죠.”

그가 떠나기 전에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렉은 중서부에 있는 다음 도시에 도착하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장로 형제를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2주 후에 그는 로스엔젤레스에서 저에게 써 보내어, 너무나 많은 집회들과 면담과 수양회 때문에 그 장로 형제를 만날 수 없었노라고 해명하고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이면 지금도 그분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의 집회들을 마치고 그렉은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몸을 싣고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리버사이드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에는 빈 좌석들이 있었는데 이 좌석들이 하나 둘씩 채워지기 시작하자 그렉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젊은이를 자기 옆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좌석이 그렉의 옆 좌석이었는데 마침내 나이가 좀 든 사람이 그 좌석에 앉았습니다. 이걸 본 그렉은 ‘나이가 많건 적건 간

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주 예수님을 전하시다니 이상한 일이로군요. 마침 저도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아, 그러세요? 제 이름은 그렉 리빙스턴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제 이름은 ○○○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바로 그레이 만나지 못했던 그 장로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그의 아내는 아리조나의 피닉스에 사는 떨을 방문하려고 차를 임대했는데 이 차를 리버사이드로 넘겨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 장로는 자기 아내를 피닉스에 놔두고, 차를 리버사이드로 넘겨준 다음,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피닉스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모든 그레이하운드 버스와 이 버스들이 운행하는 모든 도시와 이 버스의 모든 배차 시간과 이 버스들의 모든 좌석들을 고려한다면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두 사람을 같은 좌석에 앉도록 조정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수렴(收斂)이었습니다.

열매를 맺은 씨

한 성경교사와 세 명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파리의 북부 역에서 기차를 놓쳤기 때문에 기타와 성경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조용하게 찬송을 부르자 여러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대화를 나누려고 모여들었으며, 활기있는 전도 시간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데 한 젊은 미국인이 지나가다가, 표를 사려 가는 동안 자기 가방을 잠시 맡겨도 되겠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시카고에서 왔어요.”

“그래요! 여기, 이 사람도 시카고에서 왔는 걸요.”

그러자 성경교사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봄 그레이슨이라 합니다.”

“저는 테리 플린이에요.”

“집이 시카고의 어디쯤이에요?”

알고보니 그는 성경교사가 다니는 교회에서 두 구획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교사가 그의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자 테리는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마침내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당신이 이 파리의 기차역에서 나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테리는 약간 성이 난 모습으로 표를 사려 갔고, 얼마 안 되어 그 그리스도인 팀은 자기들이 접촉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드린 후 브뤼셀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몇 년 후 봄 그레이슨은 아일랜드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수양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으며, 자신의 모 교회에서 한 주일(主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집회가 끝났을 때 단 올슨이라는 젊은이가 그에게로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레이슨 형제님, 이 사람은 저의 그리스도인 친구 중의 한 사람인 테리 폴란이에요.”

봄은 그의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기억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하여 다른 일반적인 질문들을 던지다가 드디어 그에 관한 기억이 되살아오르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테리 형제님, 혹시 파리의 Gare du Nord란 곳에서 저에게 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테리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 이후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했습니다.

그는 기차를 타고 독일로 간 다음 비엔나까지는 다른 사람의 차에 편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폭스바겐(독일제 대중용 자동차)을 타고 가다가 그를 태워 주었는데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여자는 공교롭게도 시카고의 교회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그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 그녀가 때때로 방문했던 그리스도인의 목장을 그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목장은 콜로라도에 있었습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테리는 이듬해 여름에 그녀와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그에게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리

고 대화 도중에 콜로라도의 목장 이야기도 다시 나왔읍니다. 8월에 일주일간 휴가를 받게 된 그는 그목장으로 가서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했읍니다. 목장에서의 마지막 날 테리는 수영장에서 홀로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이빙을 하고 수영장으로 들어와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얼마 안되어 그는 테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읍니다. 파리의 기차역에서 심었고, 기도로 물을 준 그 씨는 몇 년이 지나자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성경교사로 하여금 자신이 뿐만 씨의 열매를 보게 하셨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들 중에는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그 결과를 알게 되는 사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틀렸지만 하나님은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클레어런스 조운즈(Clarence Jones)와 루벤 라슨(Reuben Larson)에게 개척선교방송국을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세우느냐?”였읍니다.

그들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올바른 장소로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은 에쿠아도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읍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들은 동의하지 않았읍니다. 예를 들면, 미국무성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현재의 정보에 의하면 적도는 전파를 발산하는 장소로는 부적합합니다. 이 일에 성공하려면 가능한한 적도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를 찾아보십시오. 하지만 적도에서는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에쿠아도르에서 방송 가능성을 탐진하고 있던 한 제조 회사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산맥에 많은 양의 광상(礦床)들이 묻혀 있는 관계로 그런 지점에서 발산된 방송 전파는 지면에서 흡수되어 없어지거나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바람 속의 씨들(Seeds in the Wind)』이라는 책에서 프랭크 S. 쿡(Frank S. Cook)은 “기술적인 보고서들과 인간의 현명한 충고, 에쿠아도르 구아야킬 항구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끌어당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선교사들을 어떻게 키토(에쿠아도르의 수도)로 인도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들을 전파하는 안데스의 소리(the Voice of the Andes)가 설치되었습니다.

쿡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후의 역사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인간은 틀렸지만 하나님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그리고 적도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전파는 더욱 좋아집니다!”

키토는 시에라(스페인이나 중남미의 뾰족뾰족한 산맥) 가운데서 거의 만(萬) 피트 상공에 위치해 있으며, 적도에서 남쪽으로 겨우 10마일밖에 안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

뉴저지에 사는 도로씨아 클랩이라는 여인은 자기 두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상태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돌아보셔서 학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이 맷세이로부터 흘러넘쳐서 세상 끝까지 이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그녀의 아들, 단이 집으로 와서, 죄오지 버워라는 학생이 목을 다쳐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때부터 그녀는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죄오지는 기차역에 들어갔다가 선반 위에 얹혀 있는 전도지 한장을 가져갔습니다. 그 전도지들은 클렐씨 부부가 거기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죄오지는 단 클렐(도로시아 여인의 아들)이 회장으로 있는 성경클럽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들이 불참할 때에는 단이 맷세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말씀 캠프에 참석하기 전에 단은 자신이 구원의 도(道)를 더 쉽게 제시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캠프에서 편지 한장을 써서 요한복음이 자기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를 말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복사하여 1953년부터 1954년까지 성경 클럽에 등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냈으며, 이 때 요한복음도 같이 보냈습니다. 죄오지는 요한복음을 탐독하다

가 마침내 주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즈에서 있었던 벨리 그레함 선교운동 때에 그는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께 공적(公的)으로 헌신했습니다.

그 후 얼마 안되어 남부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죄오지는 불타 있는 그리스도인 데일 토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성경을 공부하다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부과된 준엄한 명령을 대하여 되었고, 구주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에게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죠오지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Moody Bible Institute)로 전학했고, 데일은 휴이튼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다른 젊은이들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도전했으며,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철야기도집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와 여름방학 중에 텁을 이끌고 멕시코로 갔습니다. 이들로 밀미암아빛을 보내자(Send the Light)라는 단체가 결성되었는데 이 단체는 나중에 해외에서 Operation Mobilisation이란 단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선교가 시작된 이후로 그들의 사역은 스페인과 터키, 그 다음에는 유럽 전역으로 중동과 아시아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척의 배에 의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도 역시 접촉을 갖게 되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 고등학교를 돌아보셔서 학생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고독한 중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죄오지 베워가 구원을 받은 이후로 수 백 명의 학생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 복음이 램세이로부터 흘러넘쳐 세상 끝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역시 응답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팀들과 문서들, 그리고 두 척의 배를 통해 구원의 메세지가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한 여인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기

죄오지 베워가 구원을 받은지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는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 공항으로 급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택시를 내리면서 어깨에 메는 가방 하나를 짐칸에 두고 그냥 내려 버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게 된 그는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자기 성경과 아주 중요한 서류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방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택시들의 숫자와 많은 운전사들의 부정직성을 감안할 때 그의 기도는 응답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죄오지의 동료 중의 한 사람인 론 페니가 카트만두에서 인도로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는 고물이 다 된 차였습니다. 버스는

몇 마일쯤 가다가 고장이 나서 응급조치를 받았는데, 몇 마일쯤 가다가 다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동여매는 철사를 주어 어떻게 또 가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버스가 세 번째로 고장이 나자 른 페니는 인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읍니다.

그는 다른 두 선교사에게 카트만두로 다시 돌아가자고 설득했읍니다. 그 때 둔은 짐 나르는 가방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두 선교사는 큰 여행가방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읍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갈을 실어나르는 큰 트럭에 편승하게 되었읍니다. 하지만 그 트럭은 카트만두의 교외에서 그 여행을 끝내고 말았읍니다. 그곳은 그들의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읍니다.

그런데 트럭이 주차한 바로 그곳에 택시가 딱 한 대 외롭게 서있었읍니다. 그 당시 만일 둘이 혼자만 있었더라면 그는 택시의 짐칸을 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두 선교사의 여행가방 때문에 그는 짐칸을 열어야만 했는데 바로 거기에 죄오지의 어깨에 메는 가방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 그 가방을 되찾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그 댓가를 지불할까요? 이상의 기록들이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치愆서	
의사의 눈을 통해 본 병고치는 기적 이너 C 힐 차운 37만원/값 400원	이어자이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밀리암 맥도널드 차운 214면/값 2,000원
그리스도인과 고난 마루드 할로우 차운/제판/값 400원	성경해석의 원칙 25가지 에든튼 하워 차운/제판/값 6,500원
그리스도인과 선교 칼 노트 '네 차운' 37면/값 500원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직 윌리엄 스트리크 차운 344면/값 6,200원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레자도 할라스 차운/제판/값 400원	설교자와 그의 설교 밀브래드 P 길스 차운/제판/값 8,500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풀 리틀 차운 37면/값 400원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이무 - 예배 밀브래드 P 길스 차운 340면/값 4,000원
믿는 사람의 삶 존 슬리보 차운 36면/값 400원	세대주의의 비른 이해 홀스 C 라이리 차운/제판/값 4,800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인가? N.M 프라이저·농기설 차운 64면/값 1,100원	주님의 만찬 밀브래드 P 길스 차운 256면/값 4,300원
오늘날의 빙언 데이비 풀 차운 48면/값 800원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사역 노르만 그로포드 외 차운 38면/값 4,800원
하나님께 돌아오자! 밀리암 맥도널드 차운/제판/값 1,100원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모리스 차운 22면/값 5,000원
그리스도인의 소망 밀리암 할리스 차운 37면/값 1,100원	해심 설교 노우트 밀리암 로저스 차운/제판/값 9,000원
그리스도인의 내면생활 C.I. 스코풀 차운/제판/값 1,400원	나그네의 소금 이준일 차운 306면/값 4,800원
그리스도인의 성경지침 밀리암 맥도널드 차운 57면/값 1,400원	외가와 우정 밀리암 차운 24면/값 5,000원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 칼 노트 2년 차운 46면/값 1,400원	뜻의 때와 같으리나… 풀리 앤더슨 차운 192면/값 5,000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존 윌리암 브람틀 차운 123면/값 1,500원	세계 선교 - 전진전 L.E. 맥스웰 차운 308면/값 3,500원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데이비드 풀 차운 66면/값 1,400원	열리야 - 열리나 C.E. 터너·V.D. 드렌럴 차운/144면/값 2,000원
내율과의 함께 H.A. 아이언사이드 차운 36면/값 1,100원	아스라엘과 유다 왕들 밀리암 로저스 차운 12면/값 2,500원
베드로의 사랑과 증거 R.E. 할로우 차운 56면/값 1,200원	진리의 열과 마희의 열 밀리암 차운 36면/값 1,700원
여호와의 7장기 존 리치 차운 66면/값 1,400원	구원의 영원선포 나이구절 해설 밀리암 차운 35면/값 1,000원
광야의 성막 존 리치 차운 160면/값 2,800원	영원을 계시하는 삶 밀리암 맥도널드 차운/14면/값 2,500원
예로부터 기나긴까지 존 리치 차운 66면/값 2,800원	침된 세자의 길 밀리암 맥도널드 차운/96면/값 1,800원
주 예수님의 재림 존 리치 차운 128면/값 1,800원	대일의 목상 밀리암 맥도널드 차운/40면/값 8,000원
믿음의 근본 친리들 존 리치 차운 128면/값 1,800원	성령총미학 가정 밀리암 차운 14면/값 2,000원
성령님의 역사 C.I. 스코풀 차운 98면/값 1,500원	결혼과 가정 J. 허간즈 차운 140면/값 3,200원
신약에 깊숙진 고리적인 비밀들 밀리암 차운 128면/값 2,500원	도망자 - 니나례 예수를 만나 사람들 피트리아 :: 외 요한 차운/182면/값 4,000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R.E. 할로우 차운 128면/값 1,800원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내란 J. 풀 차운/200면/값 3,300원	
제사장 의복 C.I. 솔레밍 차운 208면/값 3,500원	
황금의 집 - 성막 J. 둠부 차운 36면/값 3,000원	

*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투복으로 손을 쳤

당신이 꼭 이어서 말할 평생부 읽을 때면 같 200원
돈으로 살수 없는 진주 편집부 지음·16판·값 200원
두 길과 두 운명 닐럼 베이커 지음·1판·값 200원
생명을 위한 생명 편집부 지음·2판·값 400원
구원의 인전 화신 기별 존지 키털 지음·3판·값 400원
어떻게 거듭날까? 이춘원 지음·3판·값 400원
침된 구원이란? 알렉산더 디설 지음·3판·값 400원
복음에 관한 오해들 알버트 허온 지음·2판·값 400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모하자! 허온 지음·3판·값 400원
믿어도 되인가? 허온 지음·3판·값 400원
불가능한 일을 알프레드 킹스 지음·1판·값 300원
구원이란 무엇인가? 송자국 지음·2판·값 400원
불법이란 무엇인가? 송재국 지음·3판·값 400원
중생(가을님) 그것은 무엇인가? 송재국 지음·2판·값 400원
하나님의 구원계획 송재국 지음·15판·값 400원
복수를 통한 고로 송재국 지음·8판·값 400원
용서받지 못하는 죄 길종민 지음·3판·값 400원
성경을 알고 자신을 알리 편집부 역주·5판·값 700원
영혼의 해당 길종민 지음·2판·값 800원
들으라! 지역에서 들려오는 봉곡을 하윤숙 지음·2판·값 400원
믿는 자의 영광인 안전 H.A 아이언사이드 지음·9판·값 1,400원
해답은 있는가? 존 밀러차드 지음·~판·값 1,100원
단 한 번 뱀이 인생 밀리얼 맥도널드 지음·9판·값 1,000원
음악과 자유 밀리얼 맥도널드 지음·9판·값 1,400원
하나님의 음행 밀리얼 맥도널드 지음·3판·값 1,400원
인간의 꿈에서 대학 하나님의 대답 밀리얼 맥도널드 지음·9판·값 1,100원
일반인 이미지도 밀리얼 맥도널드 지음·3판·값 1,100원
너는 이것을 기억하리? D.L 무디 지음·92판·값 500원

한국문화재

* 가격은 별도로 산 않습니다

교회·장례 연구서

순례하는 교회
E.H. 트로우드비트 지음/ 96면 값 9,000원

그리스도인의 모임(교회)
J.R. 리틀프赖우드 지음/224면 값 4,000원

모임에 대한 성경의 원리
알프레드 P. 김·지음/66면/값 1,400원

신약 교회의 조직
도날드 L. 노비 지음/128면/값 2,500원

그리스도인의 문이별 훈련 - 교회생활
O.J. 길드 지음/128면/값 3,500원

하나님의 교회, 그 시작과 성장
R.E. 케로우 지음/216면/값 1,500원

교회는 하나님의 통과할 것인가?
E.W. 로저스 지음/128면/값 1,700원

간추린 교회사
A.E. 호오트 지음/86면/값 1,400원

교회 안에서의 여자들의 책의
겔부르드 할로우 지음/86면/값 400원

지역교회의 인도자들
제독 더니얼즈·肯 프赖스 지음/86면/값 400원

나는 어떤 교회에서 누구와 교제를 나누어야 할까요?
필립부 어음/38면/값 500원

신전·문화·미술 주제

점세기 연구(상)
헨리 M. 모리스 지음/132면/값 8,500원

점세기 연구(하)
헨리 M. 모리스 지음/176면/값 11,000원

시사기 룻기 강해
사무엘 리노우트 지음/460면/값 6,500원

에스라·느헤미야: 에스더 강해
H.A. 아이언사이드 지음/504면/값 4,800원

메시아 시편 강해
T. 에너스트 웨슬리 지음/204면/값 3,500원

점언 강해
H.A. 아이언사이드 지음/400면/값 6,500원

이기서 강해
H.L. 아이언사이드 지음/145면/값 2,800원

시드행전 강해(상)
존 헤임 지음/20면/값 4,800원

시드행전 강해(하)
존 헤임 지음/16면/값 6,200원

로마서 강해
H.A. 아이언사이드 지음/192면/값 3,300원

히브리서 강해
윌리엄 로저스 지음/160면/값 3,000원

이고보서 강해
밀버트 맥슬리 지음/113면/값 2,000원

요한계시록 강해
이거스트 박람 지음/264면/값 4,500원

일기 쓰는 신지서 개요
윌리엄 맥도널드 지음/240면/값 4,000원

갈리디아서·에베소서 주석
팻 헨트, 밀버트 랙터 지음/336면/값 5,500원

빌립보서·골로세서 주석
시드니 악슬리, 토마스 벤풀리 지음/416면/값 8,500원

데살로니기전서·데살로니기후서 주석
에리스터 밀론·토마스 스미선 지음/272면/값 5,000원

전도서 강해 - 찬드리고 핫데니
윌리엄 맥도널드 지음/128면/값 2,800원

신자 성경 주석 - 미태복음
윌리엄 맥도널드 지음/416면/값 9,000원

신자 성경 주석 - 요한복음
윌리엄 맥도널드 지음/416면/값 9,000원

그리스도교의 간증 및 전기

사하리의 시내들
찰스 R 마션 지음/256면/값 4,300원

작은 여인
글레나-아일 카드 지음/176면/값 3,000원

시베리아의 불꽃
아놀드 유프 지음/112면/값 2,300원

횃불나라
크리스티나 로이 지음/176면/값 3,000원

복자는 소녀병
M.L. 로스밸리 지음/34면/값 1,100원

립비여, 어디 계시오니가?
윌리엄 퀸리스 지음/104면/값 1,500원

만월 나에게 둘진 한 품만 잊지마
H.오인 캐서 지음/48면/값 1,400원

아이언사이드의 생애
E.슬리 스클리위지 저음/23면/값 3,800원

나의 아름다운 나의 하나님
도나타니아이 지음/192면/값 3,000원

내 염증에 횃빛 비치니
김민자 지음/34면/값 300원

윌리엄 보데의 생애
해인드 헤일리 지음/220면/값 4,500원

하나님의 도성을 찾은 하브리인들
루디아 보스카이준 지음/320면/값 4,500원

술은 보네
사생열의 사람들 출판/118면/값 2,500원

변화된 강도
찰스 루캐인 지음/64면/값 1,100원

시베리아로부터의 달출
개르하르트 월 지음/96면/값 1,700원

주님 위해 험박방는 사람들
린치드 벙글란트 지음/128면/값 2,800원

어린이들과 함께 보는 책

아름다운 나라로 가는 길
언니 포터 리아트 지음/128면/값 1,700원

또 다른 소녀
J.C. 브륄필드 저음/96면/값 1,000원

눈보다 학계
O.F. 월튼 지음/144면/값 1,700원

아리아 친구여정(상)
존 번역 지음/3,250면/값 4,300원

아리아 친구여정(하)
존 번역 지음/194면/값 3,500원

크히 강진 진주(민화)
이순희 글·그림/144면/값 600원

빌리도의 노고서(민화)
이승희 글·그림/144면/값 600원

아침에 만나요(민화)
이승희 글·그림/48면/값 600원

두 형제(민화)
이승희 글·그림/48면/값 600원

길 서편에서 온 짜수
지오프리 T.볼 지음/144면/값 2,300원

종교에서 생명으로 -요한 웨슬리의 생애(민화)

이원희 글·그림/128면/값 2,300원

아리아를 위한 삶지기 이야기
아이모또 스기히로 지음/96면/1,800원

※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

발행일 : 1988년 9월 20일 1판 1쇄 발행
2000년 12월 5일 1판 6쇄 발행

지은이 : 칼 노트 2세, 윌리암 맥도날드

옮긴이 : 김 병 회

발행인 : 이 치 일(E. Ritchie)

발행소 : 전도출판사(등록 98-43호)

연락처 :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전 화 : (031) 914-2732

팩 스 : (031) 917-4520

정 가 : 1,5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ISBN : 89-7531-714-5 03230